

동심을 지키는 장난감 박사 할아버지들



인천 시민공원역 지하상가에 위치한 키니스장난감에서 김종일 이사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장난감 박사들은 장난감을 수리하며 보람을 느낀다.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 지하상가에는 장난감으로 가득한 공간이 있다. 장난감을 파는 가게라는 생각도 들지만 벽에는 ‘장난감 무료진료’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안으로 들어서니 오전 이른 시간임에도 여섯 명의 할아버지가 저마다 하나씩 장난감을 들고 매만지느라 분주하다. 이곳은 올해로 12년째, 그것도 ‘무료’로 전국 어린이들의 장난감을 고치고 있는 ‘키니스장난감’이다.

키니스장난감은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가르치던 김종일 교수(키니스장난감 이사장)가 은퇴 후 2011년 동료 교수, 대학 동기와 의기투합해 세웠다.

“12년 전, 은퇴 후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던 중, 아는 후배가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 고치는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의를 하더라고요. 공과 대학을 나왔으니 장난감 회로도 보고 수리하는 일은 문제없고, 버려지는 장난감을 되살리게 되니 환경보호도 하는 봉사가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키니스(kinis)’는 어린이를 의미하는 ‘키드(kid)’와 노인을 뜻하는 ‘실버(silver)’를 조합해 만든 이름으로, 어린이와 실버 세대가 서로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수리는 무료, 실력과 책임감은 박사

고장난 장난감은 병원을 찾은 환자처럼 진료예약, 문진, 치료, 입원, 퇴원 등의 과정을 거친다. 더욱이 장난감을 살피는 할아버지들의 마음가짐이 의사 못지않기에 서로를 ‘박사’라고 부른다.

이용하려면 인터넷 카페인 키니스장난감에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게시판에 장난감의 사진과 증상을 올리면 진료 예약이 된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리 허가 댓글을 확인 후 의뢰를 해야 한다. 의뢰까지 마쳤으면 게시판에서 의뢰서를 내려 받아서 메일(kinis46@naver.com)로 보내고, 수리할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면 된다.

모든 수리는 실명제로 운영하며 장난감을 치료한 박사가 직접 서명한다. 고치지 못하더라도 이유를 적어서 보내준다. 무료지만 수리 실력은 물론 책임감까지 박사급인 셈이다.

요즘은 비용을 받지 않고 장난감을 고쳐주는 곳이 흔하지 않다보니 키니스장난감에는 많은 수의 고장난 장난감이 몰린다. 하루 기준으로 택배 20개 정도만 예약을 받는데, 택배 한 상자에 장난감이 적으면 2~3개, 많으면 8개씩 들어 있다.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하루 기준 한 사람 당 대략 10개,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30분마다 1개의 장난감을 고쳐야한다. 대부분 예순을 훌쩍 넘긴 박사들이 조그만 장난감 부품과 씨름하며 일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깨와 팔, 눈까지 성할 날이 없지만 바빠 움직여 수리에 매진한다.

“아침에 출근하면 문 앞 택배 박스가 제법 쌓입니다. 전국에서 장난감을 고쳐달라고 보내거든요. 서두르지 않으면 오늘 끝내야하는 일정을 못 맞춥니다. 어린 나이일 때 가장 소중한 것이 장난감이지요. 아이들이 코가 빠지도록 장난감만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 박사들 어깨가 좀 아픈 것이 대수겠습니까. 아이들과 약속한 수리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장난감 없이 자라는 아이가 없는 그날까지

택배비를 제외하고는 장난감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수고비를 받지 않다보니 항상 부족한 재정이 발목을 잡는다. 김종일 이사장의 퇴직금 상당수가 운영비로 쓰였고 부족한 부분은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문을 닫을 위기도 여러 번 겪었다. 그럼에도 키니스장난감을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은 아이들의 맑은 동심이다.

“장난감을 고쳐서 보내주면 아이들이 감사의 글이나 편지도 써서 보내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그러지요. 박스에 과자나 사탕, 커피믹스도 있었어요. 소소하지만 큰 감동을 얻지요. 무엇보다 고쳐진 장난감을 들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여기 있는 모든 장난감 박사가 힘을 얻지요.”

12년 동안 장난감 박사들이 가장 많이 만져본 장난감은 모빌이다. 수리한 장난감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아이가 있는 집이면 무조건 있다는 모빌 알죠? 그걸 제일 많이 고쳤어요. 애들이 태어나 눈을 뜨고 일어설 때까지 쓰는 것인데, 그거 없으면 엄마들이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수리 1순위가 모빌이지요.”

김 이사장은 본인만큼 장난감을 잘 아는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없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모빌, 에듀볼, 국민대문, 걸음마 보조기 등




장난감 박사 할아버지들이 고장난 장난감을 살펴보고 있다.

연령별로 필요한 장난감을 줄줄이 꿰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장난감도 늘어나 수리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공부를 해나가며 고치려한다.

“장난감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것을 느껴요. 택배를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려받거나 중고로 산 장난감을 어떻게든 고쳐서 쓰려는 사람들이에요. 장난감만 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손을 거쳤는지 알 수 있죠. 반면 기부받은 장난감을 보면 미니카 수백 개가 든 상자를 세 박스나 보내주시는데 대부분 새것이죠.”

아이들이 자신의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정서상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는 김 이사장은 매년 1만여 개의 장난감을 수리하는 동시에 많은 수의 장난감을 기증해왔다. 개인이나 여러 단체 등에서 기부를 받아 이를 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필요한 곳에 전달해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아산상 자원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 이사장은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냐”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무료로 장난감을 수리해주는 곳이 서울,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가서 은퇴한 분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내에서 장난감 없이 자라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글 편집부

2022년 제34회 아산상 후보 추천 접수 마감은 4월 22일(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2-3010-2560, 2559